

16C 매너리즘시대 복식과 20C 엽기패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과정,
現 동서울대학, 유한대학,
해전대학 강사

김영란*

목 차

- I. 서론
- II. 매너리즘과 엽기에 관한 어원
- III. 매너리즘시대 복식과 엽기 패션의 비교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20세기를 문화의 세기, 개인이 승리하는 시기, 세계화시대, 다양화 시대, 지식기반 시대,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라고 한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문화의 시대에서 급변하는 고감각의 소비자들은 패션에 있어서 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16세기 매너리즘 시기에는 전통주의에 입각한 후기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있어서는 불균형하고 파격적인 시도가 있었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라파엘의 완벽한 미술에서의 양식은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화풍으로 과학적이고 계획된 구도에 의한 원근법을 도입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색채와 구도, 인물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여기에 반기를 든 매너리즘은 가히 파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매너리즘 미술에 있어서는 르네상스 미술에 반기를 들고 강렬한 색채와 왜곡된 형태의 표현을 그 위상으로 삼았다. 이 당시에는 주로 후기 르네상스라 표현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야 매너리즘이라는 용어가 쓰일 정도였다. 그러나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복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폴셋이나 빠니에 등을 통하여 인체를 억압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또한 다가오는 21세기의 불안한 기운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세기 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21세기 전반에 걸친 엽기 패션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기괴한 옷이나 장신구를 아름

1) 다양한 시도: Hip-Hop, Retro-Modernism, High-Tech Chic, Futuristic, Cyber-Techno 등

답게 조화시키기보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일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항상 새로움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렇듯 틀에 박힌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파격적인 시도라는 맥락에서 두 시기를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복식에 있어서 비교 연구하여 보고자 하였다.

- 그러므로 본 연구는 16세기의 매너리즘패션과 20세기 후반의 엽기 패션에 대하여
- 첫째, 매너리즘과 엽기에 관한 어원 및 의미를 알아보고
- 둘째, 두 시기의 사회적 배경 및 패션 특징을 비교하여 보고
- 셋째, 두 시기의 패션이 추구하고자했던 시대적 표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매너리즘과 엽기에 관한 어원 및 의미

1. 매너리즘의 어원 및 의미

‘마니에리즘’ 혹은 매너리즘(Mannerism)이란 17세기 이후부터 미술에 관한 문헌에 쓰이다가 역사적 비평적 의미가 함축된 복합적인 의미로 문학 비평 및 신학에도 통용된 용어이다. 보통 미술사의 시대 구분에서는 르네상스 말에서 바로크로 이행하는 시기인 약1520~1600년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과도기적인 미술 양식을 말한다.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어인 ‘디 마니에라(Di Maniera)’에서 나온 것으로 매너리스트들의 그림은 콘트라포스포 동작이 지나쳐서 몸 전체가 한껏 비틀려 있고 육체의 묘사도 또한 왜곡되어 길게 늘려져 있거나 지나치게 근육질로 표현되어있다. 색채는 원색적이고 긴장감과 운동감을 강조하고 빛의 묘사도 매우 비현실적이다. ‘퇴보에 도달한 전통주의’, 또는 ‘정신적인 위기의 시대에 두각을 나타낸 죽어가는 양식의 마지막 표현’ 등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그림1,2>에서 마돈나는 인위적으로 몸과 팔다리가 늘어져 있고, 천사들은 조화롭게 배치되기보다는 좁은 왼쪽 구석에 몰려 있다. 이와 같이 불균형한 구도와 비현실적인 묘사로 인해 이 작품은 대표적인 매너리즘미술로 꼽힌다. 또한 루크레지아의 초상에서도 목이 지나치게 길게 왜곡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매너리즘 시대의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면서 드볼작의 선도 아래 독일 비평가들과 역사가들은 매너리즘을 엘 그레코 <그림3>에서 정점에 이른 유럽의 예술 운동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그림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긴 육체, 폭풍우에서 내려오는 듯한 비현실적인 빛, 강한 색채, 비틀린 몸체, 동적인 느낌, 긴장된 감정 같은 엘 그레코 후기 회화의 양식적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 있다. 이들은 매너리즘이 독일 표현주의의 미학적 왜곡 및 정신적 격렬함 등이 무분별하고 기묘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다.²⁾

2) 캐롤스트릭랜드, 김호경 옮김「클릭서양미술사」, 예경, pp.108-11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매너리즘을 ‘독특한 방식에의 과도한 또는 부자연스러운 탐닉’ 이라고 정의한다.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의 역사가들은 매너리즘이라는 말보다 ‘후기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한편 영어의 ‘틀에 박힌(mannered)’이라는 비전문적인 비평 용어는 19세기의 편견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



〈그림1〉 파르미자니노, 〈긴목의 마돈나〉, 1534~40, 우피치미술관, 피렌체



〈그림2〉 브론지노, 〈루크레지아의 초상〉, 1503~72, 우피치미술관, 피렌체



〈그림3〉 엘 그레코, 〈요한 묵시록의 다섯 번째 봉인의 개봉〉, 1608~14,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뉴욕

특정한 양식이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너리즘이 보여주는 긴장과 과장을 이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와 같이 하나의 이상에 의해 지배되던 시대가 아니라 여러 경향들이 교차하여 갈등을 일으키던 위기의 시대였던 데서 오는 일반적인 불안의 반영으로 해석했다. 신플라톤주의의 교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예술가들의 독창성과 상상력이 장려되었다. 그리하여 과장되고 병적인, 때로는 괴기하기까지 한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또 전문가와 소수의 지적인 엘리트에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심원한 암시, 놀라움, 새로움을 추구해야 했다. 마침내 16세기말에 와서 고전적 균형, 이성적인 자세, 불안정한 구도, 자의식이 강한 기교, 모호함의 강조로 변형되어 오늘날의 초현실주의의 한 특성을 예고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매너리즘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매너리즘에 대한 20세기의 관심을 일반적으로 그 동기가 모호하고 해석상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너리즘은 기교주의, 형식주의,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경향이나 자세를 비난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매너리즘의 새로운 평가는 20세기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미술에서 찾아진다.³⁾

3) 이순원, 16C 이탈리아 매너리즘미술, 수원대 논문집, 1993, p.241-242

2. 엽기의 어원 및 의미

엽기(獵奇)란 두산 동아 대 백과 사전에서 기괴하고 이상한 일에 흥미를 느끼거나 즐기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개념이라 하였다. 산업화 시대로 일컬어지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이른바 '뉴 밀레니엄'으로 불리는 2000년대의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섬뜩한 용어로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순식간에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확산되었다. 무엇이든 보통의 것과 달리 특이하거나 색다른 스타일을 지칭하며 비단 패션뿐만이 아닌 유머나 개인의 행동방식, 문화적인 변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⁴⁾

4) 두산동아 대 백과사전 (CD)



〈그림4〉 엽기적인 구두광고

B급 문화의 상징인 엽기는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패션의 기이한 조합과 즉흥적인 에드리브, 익살 창법과 거칠게 반복되는 사운드 랩과 영화계나 CF계에서는 이런 문화의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중문화의 조잡한 키치' 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최근 한국문화가 정신적 퇴행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그 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4〉와 같이 프랑스의 구두 광고에 등장한 타조와, 전라의 빨간 머리 남자가 여성 신발광고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성의 미학보다는 사소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집착, 강박적인 유머, 난무하는 가학과 엽기, 지나친 완벽은 위선이라고 매도해 버리는 요즘의 전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패션의 또 다른 돌파구 역할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

5) 한국섬유신문, <http://www.ktnews.com/article1>, 2001년 4월 28일, 10월6일.

Ⅲ. 매너리즘시대 복식과 엽기 패션의 비교

1. 사회적 배경에서의 비교

1-1. 16세기의 사회적 배경

16세기의 사회 인식의 변화가 확산되는데 루터의 코페르니쿠스적 종교개혁 운동은 매너리즘이 역사적으로 정의 가능한 한계가 양식으로 등장한 것은 반 종교개혁 운동과 그 시작을 같이 한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정신은 무너지고 조화, 통일, 균형의 미는 왜곡과 과장으로 나타났다.⁶⁾

6)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p.162-167

1-2. 20세기 후반의 사회적 배경

20세기 후반의 엽기의 대명사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함과 자극의 매개로 급변하는 산업사회를 풍자하듯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엽기 토끼인 '마시마로' 는 먹다 버린 메쉬멜로우 덩어리와 가장 많이 닳았고 버려진 존재의 비참함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현실을 비꼬고 부정하면서 황당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하는 현

7) <http://www.mashimaro.co.kr>

대인의 대응으로 등장하였다.⁷⁾

위의 매너리즘과 엽기를 사회적 상황에서 비교하여 본다면 사회에 反하여 나타나는 왜곡과 과장, 현실풍자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5〉 Henry VIII세의 초상화

2. 패션에서의 비교

2-1. 16세기 후반의 복식

8) 송수원(1997), 후기 르네상스 궁정 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 양식, 서울대석사학위논문, pp.32-70

매너리즘 시대 복식의 특성에 대해 송수원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매너리즘 시대의 복식은 인체의 표면을 풍만하고 유동적이며 기하학적 추상화의 형식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인체를 과장, 왜곡시켰다. 둘째, 인체가 전체적으로 반 자연적인 비례를 신장시키는 특징과 뒤틀린 포즈를 즐겨 사용하여 복식과 자세를 신장시켰다. 셋째, 복식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복잡하게 재 조합하였다. 넷째, 현실로부터 초연한 귀족적 우미를 위해 활동성과 기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림6〉 엘리자베스 I 세 여왕, 1590년경의 로브, 앞이 뾰족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스토마커,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장갑

16세기 후반의 남성복은 과시적인 사치와 인체의 기괴한 왜곡 표현으로 야기되는 의복이라 하여 도덕주의자들은 독설로 비난하였다. 1522년경의 무명인의 시〈A treatise of a Galaunt〉에서 남성복의 코드피스(codpiece)와 더블릿의 대표적인 예로 1539년경 영국 헐리8세의 복식에 잘 나타나는데 슬래시가 장식된 더블릿, 은사로 짠 옷감에 수를 놓아 화려해진 베이스즈(bases), 스커트 부분을 어깨 중간에서 허리에 걸쳐 U자형으로 깊고 넓게 파인 '바디'라는 옷깃과 연결, 솔 칼라의 코트, 부풀린 가운의 반소매, 대담장식의 로어호즈, 깃털장식의 납작한 모자, 앞이 네모지고 슬래시 장식이 있는 신발, 허리 벨트, 보석장식의 목걸이가 보인다(그림5). 또한 '커다란 러프 칼라, 이성복장(cross-dressing, 여성 같은 복장)'에 대한 공격과 풍자를 하고 있다. 몬테뉴에 의해 '너무 비밀스런 부분이 잘 보이는 추잡한 반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여성의 의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딱딱함과 뻣뻣함으로 그것은 타이트한 레이스와 치마 밑에 삐로 고정된 구조물에 의한 것이었다. 로버트 크롤리의 풍자(1550)에서 여성들이 꼭 끼는 콜셋을 위해 '철망찌꺼기'를 사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그림6). 여성 의상에서의 과장과 사치는 말할 나위 없었으며 지나치게 하얀 얼굴과 가슴의 화장을 위해 달걀 흰자와 부작용이 심한 '봉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하얀 손이 미덕이 되어 침대 머리 위에 손을 밤새 묶어놓아 창백하게 하기도 하였다.

사회 상류계층과 궁정은 16세기의 마지막 10년은 경박함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덕주의자들이 의상의 역사를 통 털어 이러한 방종과 왜곡, 장식과 창조적 표현을 지적한 것에는 영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 자의식 있는 국가로 변모하는 시기이면서 의상에 있어 상상과 과장을 좋아하는 국가의 특성을 자각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⁹⁾

9) Aileen Ribeiro, Dress and Morality, Holmes & Meier Publisher, Inc. (New York), pp.59-73

2-2. 20세기 후반의 복식

'엽기(Bizarre)' 적인 패션은 '기이한 것의 집요한 추적'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호기심의 추구'라는 말 그대로 전혀 평범하지도 일상적이지도 않은 양상을 보인다. 엽기토끼 '마시마로'를 비롯해 영화 '엽기적인 그녀' 엽기가수 싸이와 이재수 등 이른바 엽기문화가 확산되면서 패션에서도 엽기가 신 조류로 대두되고 있다. 귀와 코, 혀, 배꼽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구멍을 뚫어 옷 핀이나 갖가지 장식을 다는 피어싱을 하거나 아래위 조화가 안 되는 이상한 색 배합의 옷차림, 가면과도 같은 짙은 화장, 번개라도 맞은 듯 쭈뼛 선 머리카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엽기패션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피어싱(Piercing)¹⁰⁾(그림7)을 꼽을 수 있다.

"엽기패션의 원조는 일본 젊은이들이 자주 모이는 대표 거리 하라주쿠로 볼 수 있는데, 짙은 화장과 진과 스커트, 망사와 가죽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차림을 한 이들을 엽기족으로 부른다. 국내에서 엽기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들을 모방한 옷차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추세"라고 한다.¹¹⁾ 패션업체들은 엽기를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 사보이 유통이 선보이는 이탈리아 브랜드 '피오루치'의 광고에는 산타클

10) 처음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액세서리화되어 다양한 곳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게 되었다. 귓볼 외에 콧바퀴, 코, 입술, 눈썹, 혀, 배꼽 등 신체의 특정부위를 뚫어 의료용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장식을 밀어 넣는 것.
http://www.moonsin.net/
11) 이유순 삼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로스와 반라 여인이 서로 껴안고 있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 브랜드는 로고마저도 두 명의 동성의 천사가 합성된 모양이라 눈길을 끈다. 지앤코의 캐주얼브랜드 '씨어스데이 아일랜드'의 이번 시즌 주제는 '섹스 온 더 비치'다. 카탈로그에는 콘돔이 부착되어 있고 사용법이 쓰여져 있다. 또한 예쁜 바비 인형과 남자인형이 실제처럼 성 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림7〉 피어싱



〈그림8〉



〈그림9〉

“엽기는 일상적인 것과는 동떨어져 부조화로 보이지만 그 속에 내재된 유머러스한 도발적인 감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하나의 트렌드로 제시된 엽기패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지가 관건이었다. 2001 추동 패션을 위한 해외컬렉션에서도 엽기가 화두로 제시된다. 영국디자이너 루엘라의 컬렉션에선 한국계 모델 카에가 얼굴에 군화발자국을 찍은 파격적인 메이크업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8,9). 또 네덜란드 출신의 듀엣 디자이너 빅터 앤 톨프 쇼(그림10,11)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 일색의 모델들이 등장했고, 요지 야마모토 쇼(그림12)¹²⁾에서는 눈썹에 흰 깃털을 달기도 했다. 이외도 상처투성이의 피 흘리는 권투선수 모습이나 얼굴에 거즈자국을 임의로 내기도하는 등 엽기 메이크업이 주류를 이뤘다.

즉, 매너리즘복식과 엽기패션을 비교할 때 인간이 작위적으로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하여 재 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http://www.firstview.com>, 2000년 A/W



〈그림10〉



〈그림11〉



〈그림12〉

IV. 결 론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매너리즘은 20세기의 예술양식인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미술에서 그 가치를 찾는다. 이것은 곧 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유럽에 나타나기 시작한 일종의 예술 운동인 패션에서의 아방가르드(Avant-garde)와 비슷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한다거나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실험적 성격이 짙은 전위예술로서 표현파, 다다, 입체파, 추상파, 초현실주의파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엽기패션은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음악과 문학에 있어서 전위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패션에서는 대중성을 무시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디자인, 일반적인 유행을 앞선 독창적이고 기묘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피어싱은 혐오스럽고 끔찍하면서도 엽기를 대변하는 단적인 예이다.

매너리즘은 조화와 이성, 현실성을 대신하여 부조화와 감성,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으며, 앞의 본문과 같이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신선하고 강한 자극을 주는 엽기 패션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매너리즘시대의 복식과 엽기패션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형태와 디자인이 전위적인 것으로 인체의 미적 표현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둘째, 입는다는 목적의 충족보다는 감상한다는 예술성위주의 패션과 조형예술의 입장으로 디자인되어 의상의 기본 개념을 혁신한 패션이다.

셋째, 매너리즘복식과 엽기패션을 비교할 때 인간이 작위적으로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하여 재 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넷째, 여기에 엽기패션은 더 극도에 달하여 예술적이거나 조형적이지 않더라도 남들과 달라 보이며 더 주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도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를 무시하고 시각적인 즐거움과 새로움을 위하여 실용적이지 못하더라도 유행의 흐름을 바꿔 보려는 인간 본성의 발로였다. 현대는 기발하거나 특이하지 않으면 마케팅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대가 아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면에서 매너리즘과 엽기패션은 각각의 시대에 특별히 요구되어져 사람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름답고 완벽한 기존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하겠다.

끝으로 매너리즘시기의 복식과 엽기패션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이라는 예술의 양식과 하위문화인 엽기가 단순히 비교되어진 부분도 있으나 분명 16세기 후반에도 현재의 엽기와 같이 반발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영란(2000) 이영희 의상의 작품세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
2. 두산동아 대 백과사전(CD)
3. 캐롤스트릭랜드, 김호경 옮김(2000), 「클릭서양미술사」, 예경, pp.108-111
4. 송수원(1997) 후기 르네상스 궁정 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 양식, 서울대석사학위논문, pp.32-70
5. 이순원(1993) 16C 이탈리아 매너리즘미술, 수원대 논문집, p.241-242
6. 이주현(1998)「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2」, 학교재, pp.128-129
7.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p.162-168
8. 조진애 · 손희정 · 이해진(2001), 「서양복식의 역사(e-book)」, 경춘사
9. 황선진 · 이은영 · 유송옥 공저(1999), 「복식문화」, 교문사
10. Aileen Ribeiro, Dress and Morality, Holmes & Meier Publisher, Inc.(New York)
11.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Fashion) Prestel Verlag, Munich, London, New York
12. Kate Mulvey & Melissa Richards, Decades of Beauty(The Changing Image of Women, 1890s-1990s), Checkmark book
13. 한국섬유신문, <http://www.ktnews.com/article1>, 2001년 4월 28일, 10월 6일.
14. <http://www.firstview.com>
15. <http://www.mashimaro.co.kr>
16. <http://www.moonsin.net>

Abstract

A study of the sixteenth century Mannerism Costume and Unthinkable fashion

Young-Ran,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ere have been many unbalanced attempts to break the rules with Renaissance movement which connects with the past in the current art. And From the latter half of Twenty century to the early half of twenty one century, the common sense of fashion is turned over by(unthinkable fashion). To analyze current apparence of fashion, this research make a comparison of fashion condition between the sixteenth century and twenty century fashion, Three analysis methods is introduced.

First of all, this paper make research of original language of mannerism and unthinkable apparence.

Second, appearances of mannerism fashion and unthinkable fashion which are taken from reference books and pictures.

Third, Gathering methods which express own style between two periods in the end part of research.

As a result, Although Mannerism isn't practical for the visual and new pleasure, and neglect humanism of Renaissance, It is a tendency which is willing to change the flow of prevailing mode, and to reflect asking of people each periods. Mannerism and unthinkable fashion is apparence of society to refresh own feeling. And then, Mannerism and unthinkable fashion is a new challenge to escape from fixed thought.

· **Key words** : mannerism(매너리즘), unthinkable fashion(엽기패션),
fresh(신선한), tendency(경향)